



‘탱고의 황제’ 까를로스 가르델의 악보 레이블

트라피체 멜로디아스 토론테스

Trapiche Melodias Torontes

지역	아르헨티나 > 멘도자		
포도품종	토론테스 100%		
알코올	13%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0~13℃		
테이스팅 노트	흰꽃향과 오렌지, 자몽과 같은 감귤류의 신선한 과일향의 아로마가 특징이다. 입안에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풍부한 과일향이 다채로움을 더하며 우아한 산도가 잘 어우러진 화이트 와인이다.		



제품설명



에바 페론, 마라도나와 함께 아르헨티나 국민이 제일 사랑하는 ‘탱고의 황제’, 까를로스 가르델(Carlos Gardel)이 1934년에 작곡한 ‘Mi Buenos Aires Querido(My Dear Buenos Aires), 나의 사랑하는 부에노스 아에레스여’라는 곡의 악보로 만들어진 레이블이 인상적인 와인. 스페인이 원산지인 토론테스 품종은 현재 아르헨티나의 페루아에서 빛을 발해 현재는 아르헨티나 화이트 와인의 대표 품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토론테스는 배, 오렌지와 같은 감귤류의 향을 특징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포도품종으로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트라피체의 뛰어난 와인메이킹으로 완성된 트라피체 멜로디아스 토론테스는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을 가진 화이트 와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와이너리



안데스 산기슭의 멘도자에 위치한 트라피체는 1883년에 설립된 이후 내수/수출 물량 1위로서 명실공히 아르헨티나 대표 와이너리로 인정받았다. 120여 년의 긴 역사 속에서도 개척정신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온 트라피체는 세계적인 와인 컨설턴트인 미셸 롤랑과 합작으로 ‘이스까이’란 제품을 만들어 내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아르헨티나 와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품평회인 IWSC에서 올해의 아르헨티나 와이너리(Argentina Wine Producer of the Year) 트로피를 4회 수상하였으며 (2004, 2006, 2011, 2012),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나 임팩트 매거진의 “Hot Brand”를 수상하면서 품질과 대중성 모든 부분에서 그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말벡’ 열풍의 선도자로서, Wine Spectator Top 100, Wine Enthusiast Top 100에 선정된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말벡’부터 1년 동안 전 세계 250만 병이 팔린 ‘오크캐스크 말벡’과 같은 대중적 와인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아르헨티나 와인’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